

알파카(Alpaca)(2)

알파카 울의 굵기는 모헤어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는(이것을 Tuis라고 한다) 1~13 μm 정도로 굵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굵어지는데, 생후 2년이 되면 모헤어와 마찬가지로 어미의 면모가 20~28 μm 이 된다.

이 면모의 성장은 1년에 100~150 mm가 되는데, 2년에 한번 깎기 때문에 상품으로 출하할 때는 200~300 mm 까지 자란다. 한 마리에서 전모되는 울의 양은 한번에 1.6~1.9 kg이다.

알파카의 몸길이는 약 2 m, 키는 약 1 m, 몸무게는 약 50 kg, 비큐나보다는 조금 크고, 구아나코나 라마보다는 다소 작은 몸집을 갖고 있다.

항상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1년 내내 방목하고 있으며, 척박한 환경이지만, 여기 저기 조금씩 돌아나는 풀과 이끼 종류를 먹고 자란다.

알파카와 비큐나 등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있는 동물의 면모는 일반 양모에 비하여 울의 품질이 강하고, 대단히 부드러우며, 매끈하고 펠트가 생긴다든가 축융이 일어나지 않으며, 직접 피부와 접촉을 하여도 결코 자극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추운 지방에서 자란 밍크 털이 한결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높은 안데스 산맥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환경에서 자란 알파카의 털이 부드럽고, 따뜻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알파카의 면모는 속이 비어 있는 중공형이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며, 제품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마련이다. 섬도가 20~28 μm 이지만, 속이 비어 있어 특히 가벼워지며, 가벼우면서도 가늘고 강하여 내구성이 좋고, 구김도 생기지 않고, 소위 필링도 생기지 않는다.

면보다 가벼운 양모보다도 더 가볍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든 직물이나 니트제품도 전혀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알파카로 만든 모자는 정말 가벼워서 쓴 것 같지도 않으면서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파카 면모의 색상은 갈색이 21 %, 회색이 20 %, 옅은 갈색 14 %, 담황색 13 %, 백색 12 %, 검정색 10 %, 혼색 10 % 정도의 비율이지만,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25종이나 된다.

백색 이외의 알파카 울은 염색이 안되기 때문에 유색 알파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서 종자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지적되고 있다.

알파카의 털에는 후야가야와 수리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면모의 길이가 9~12 cm 정도로 짧으면서 니트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면모를 후야가야라 하고, 면모의 길이가 10~20 cm 정도로 길고, 안감이나 코트, 슈트감으로 사용되는 면모를 수리라고 세분하기도 한다. 2009년도 알파카 울의 생산량은 약 4,500 톤인데, 이중에서 페루가 약 90 %를 차지하고 있다. ♣ (공석봉)



<여러 가지 색상의 알파카>